

與 “추경 조속처리” vs 野 “졸속, 대폭 삭감”

예결위 추경심사 착수... '19일 의결' 까지 진통 불가피 여 “선제적 경기대응 필요” 한국당 “총선용” 바른미래 “빛 추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이날에 이어 15일 또 한 차례의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7~18일 예산소위의 정밀 심사를 거쳐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시간표를 세워놓은 상태다. 다만 여당은 ‘조속한 통과’, 야당은 ‘대폭 삭감’ 입장을 각각 고수해 추경안 처리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예결위원들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첫 종합정책

질의부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은 “추경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둘러싸고 여러 주장이 있다”며 “국내외 환경이 상당히 엄중하고 우리나라는 대외 경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상헌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284개 사업 가운데 약 25%가 과거 두 차례 추경에 포함했다는 이유로 잘못됐다”는 의견이 있다”며 “그러나 이는 추경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린 분석이다. 이미 국회 심의 과정 등을 통해 사업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이라고 말했다.

정부 쪽 인사들도 대거 가세했다. 이날

연 총리는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한국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 그러나 추경을 하라’고 권고한 것”이라며 “이들 기관이 한국이 골탕 먹으라고 권고했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한 배경에는 추경을 포함한 정부 정책들이 효과를 낸다는 전제하에서 추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이번 추경의 특징은 ‘적자부채·빛 추경’, 면밀한 준비 없이 진행된 ‘급조 추경’, 6조7000억원 가운데 63%인 4조2000억원이 현 정부 추경 때마다 나온 ‘재탕·삼탕 추경’, 그리고 근거 법령 없는 ‘졸속편성 추경’”이라며 “정부의 이야기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총선용 단기성 알바 일자리 창출에 추경을 투입하려는 것”이라며 “추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총리는 1200억원 추경을 말했는데 하룻밤 만에 여당은 3000억 추경을 이야기한다”며 “국민 세금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길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냐”고 따졌다.

바른미래당 이상욱 의원은 “국가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추경의 절반 이상을 빚을 내서 조달한다면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국채발행보다는 이미 편성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예결위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 다시 ‘갈등 소용돌이’

혁신위원 사퇴·단식·눈물 어수선 ‘지도부 거취’ 혁신안 놓고 여진

바른미래당 주대환 혁신위원장의 전격 퇴진 이후 바른미래당 전체가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급속히 빠져드는 분위기다.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주장해온 퇴진파는 ‘혁신위의 지도부 거취’ 논의의 무력화를 위해 주 위원장이 사퇴했다’며 손 대표를 겨냥했고, 손 대표를 옹호하는 당진파는 ‘퇴진파가 일부 혁신위원들에게 손 대표 퇴진 안건 의결을 지시했다’며 역공을 취했다.

남은 혁신위원들은 당초 12일 오후 회의 열어 정상적인 혁신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합의했다. 하지만 혁신위의 적전 당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부 혁신위원이 사퇴를 선언하고, 퇴진파에 속하는 일부 혁신위원은 단식농성에 나서는 등 온종일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주 위원장이 인선한 조용술 혁신위원은 국회 정문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에 많은 의견이 있음에도 ‘가·승·진·지도부 퇴진’ 식이었다”며 “당 유력인사가 직접 ‘당 대표 퇴진’ 안건을 위원들

에게 지시했다는 말도 있다”며 퇴진파 측 추천 혁신위원들을 몰아세웠다.

전날 김소현 위원에 이어 사퇴로, 당초 9명(주 위원장 포함)으로 출범한 혁신위는 6명으로 줄었다.

현 지도부 거취와 직결되는 ‘지도부 공개검증’ 혁신안에 찬성표를 던진 5명의 혁신위원은 혁신위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혁신위 간사인 장지훈 의원은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개최한 공개 회의에서 “8월 15일 정해진 임기까지 회의를 열고 혁신안을 내놓겠다”며 “주 위원장과 위원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아가 권성주 의원은 “혁신위가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겠다”며 회의실 밖 복도에 놓인 접이식 의자에 앉아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구혁모 의원은 발인 중 감정이 북받친 듯 말을 잊지 못하고 손으로 눈가를 훔치기도 했다.

오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을 만나 “위원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혁신위를 정상화한 뒤 혁신안을 논의하자는 쪽과 정상 절차로 안건이 의결되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논의해 결론을 내리자는 쪽이 엇갈렸다”며 “다음 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천일염 가격 반토막... 고강도 대책 마련을

천일염생산자협 목포서 대책회의 16일부터 생산·판매 무기한 중단

저염식 확산에 따른 소비 감소와 미흡한 산업 인프라 등이 맞물리면서 추락하고 있는 천일염 가격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급기야 생산량 급증 시기를 앞두고 천일염 생산·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생산자들의 중단 선언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우려된다. 다만, 이들 생산자보다 임대 사업자들이 훨씬 많다는 점에서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천일염 가격 폭락’에 따른 전국 생산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신안·영광·무안 지역 천일염 생산자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생산·판매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천일염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자구책으로 생산과 판매를 중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천일염 산지 가격은 20kg들이 한 포대당 1800원에서 2000원 선까지 추락, 지난 5월(3600원)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는 이들 주장이다.

천일염 산지 가격은 지난 2011년 이후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20kg에 7900원(2012년)하던 것이 → 6160원(2013년)→5500원(2014년)→4600원(2015년)→3960원(2016년)→2800원(2018년) 등으로 급락했다. 급기야 올해는 1000원대까지 폭락했다는 것이 위원회 설명이다.

저염식 확산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와 김장 문화 변화, 김치·절임 배추 수입량 증가 등이 천일염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정부가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당장, 정부가 지난 2월 ‘제 2차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2019-2023년)에 따라 천일염 고부가가치화와 수급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한 ‘천일염산업 발전방안’을 마련, 추진중이지만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 시장 개입과 산업 활성화에 나서달라는 주문이 나오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천일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촉진 토론회에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생산자들의 생산·판매 중단 선언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군 수뇌부는 몰랐다”... 해군 2함대 ‘거동 수상자’ 은폐 논란

해군 “총장까지 보고... 국방장관·합참의장 보고 안 돼” 김중로 의원 “제보 없었다면 묻혔을 것”...국조 요구

최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정체불명의 거동 수상자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폭로한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은 “합참의장에게 상황보고가 안됐고 해군참모총장도 자세하게 모르고 있었다”며

“만약 나에게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오후 10시 2분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 창고 근처에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 수상자가 근무 중인 경계병에 의해 발견됐다. 해군은 즉시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기동타격대, 5분 대기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조사 과정에서 A병장이 당시 거동 수상

자는 본인이었다고 진술했지만, 헌병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한 직속 상급자(영관급 장교)가 부대원들에게 허위자수를 제의했고, A병장이 이에 응하게 된 것이라고 해군 측은 설명했다. A병장의 ‘허위자백’ 사실은 지난 9일 헌병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사실은 해군 참모총장에게 곧바로 보고됐지만,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

해군 고위 관계자는 “거동수상자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방장관 등에 대한 중간보고는 이뤄지

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부대 내에서 거동 수상자가 발견돼 수사를 벌이고 대공응의집이 발견되지 않아서 함대 자체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헌병수사를 통해 상급자에 의한 허위자수가 확인됐음에도 군 수뇌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던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부대 골짜방 입구 아파트 울타리 아래에서 ‘오리발’이 발견됐지만(군) 골짜방 근무자의 것으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종료했다. 진실을 밝히려”고 촉구하며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해군은 ‘의문의 오리발’에 대해서는 “2함대 체력단련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레저용 개인 장비”라면서 “체력단련장 관리원 소유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9년 7월호

6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스포츠와 문화의 물결 속으로

-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양한 문화행사들
- 광주의 문화와 정신 담은 개폐회식 기대

수영선수권대회의 기념
청년 작가 13인전

DIVE INTO YOU

여름기획
폭염·갑작 놀랄 시원함, 계곡 명소
관광 천국 광에서의 색다른 여행

한국영화 100년 위원장 이장호

“새 100년 창창 밑거름 뿌릴 시기”

워라벨시대, 문화관광이 뜬다④
문화로 계절관광
패러다임 바꾼 강원도

제64회 호남예술제

부문별 영광의 수상자 얼굴과 수상작품들

강제운 시인의 남도의 성과 토속음식⑥
섬 사람들의 ‘소울푸드’
하의도 냉면포탕

예향이 만난 이 사람
햄버거집 사장, 야구 해설자로 도전 김병현
영화 ‘오버 데어’의 장민승·정재일
고향 해남서 첫 개인전 가진 재벌 화가 한홍수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⑥
연예인의 성형
열풍 심학
화제의 전시

국립광주박물관
개관 40돌 기념 전시
‘흑백의 향연’

붉은 황토
꿈틀대는 갯벌
생명의 에너지
무인-穆安
맨발로 갯벌의 생명 느끼며 힐링
드넓은 화산백연지 연꽃 전시